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5월 16일

MTA, 태풍 SANDY 복구 및 재건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 전달

5 월 30 일 Rockaway 라인의 "A" 열차 운행 개시

새로운 전용 MTA 부서가 시스템을 수정 및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로 발생한 손상과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홍수 방지 시설을 영구적으로 수리하고 뉴욕의 대중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수립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운동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또한 A 라인의 태풍으로 손상된 Rockaway 라인이 6개월 동안 1,500 피트의 소실된 철로 재선 공사를 마치고 5월 30일 운행이 재개되며 신호등, 전선, 통신 배선 등을 교체하고 완전히 물에 잠긴 2개의 역을 재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작업에는 Jamaica Bay를 따라 있는 2마일의 통행로의 부드러운 토양 속으로 30피트 깊이까지 골진 강철벽을 설치하여 향후 발생할 소실에 대비하여 철로를 보호하고 철도가 미래의 태풍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는 어느 태풍보다도 강력하게 전체 MTA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었지만 MTA는 태풍 발생 후 복구 작업을 훌륭하게 했으며 Rockaways의 A 라인은 이달 말에 복구되어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대적인 청소와 수리 작업을 한 결과 가장 피해가 심한 시설을 제외한 전체 시설의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주민과 기업체는 강력한 대중 교통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향후 오래 동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되도록 영구적인 수리를 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전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TA New York City Transit은 또한 새로운 Sandy 복구 및 복원부를 만들어 태풍 Sandy 피해로부터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담할 계획인데 다개년의 건설 및 수 십억 달러의 연방자금 감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차역, 통풍 장치, 강 하부 튜브, 터널, 지하 트랙, 신호, 열차 공구 창고 및 수리장, 견인 변전소, 회로 차단기 하우스, 버스 터미널, 열차 타워 및 공공 구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잠길 수 있는 지하철 시스템을 태풍 기간에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Korean

Sandy 복구 및 복원부는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조달 전문가, 기타 내부 직원과 인증된 하청업체 직원이 재건 노력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 복원부는 6개 건축 및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에 16가지 작업 명령을 내려 시스템 수리 설계를 하고 전세계 홍수 예방 복구 능력에서 최선 사례를 연구하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의 도전과제에 적용할 방법을 찾고 기본 건설 설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부터 이들은 취약한 지하철역, 터널, 창고, 기타 장비를 미래의 태풍 및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미래의 설계 및 건설 활동을 지원할 기타 업체들도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표준을 마련했으며 고객과 직원이 예상한 동일한 표준입니다"라고 MTA의 차기 회장 겸 CEO로서 입후보된 MTA 임시 최고 책임자 Thomas F. Prendergast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태풍 Sandy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시스템을 복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유사한 수준의 태풍이 발생하는 것에 더욱 강력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구, 통풍기 쇠창살, 통풍기, 엘리베이터 통로 및 입구, 액세스 승강구, 비상 출구, 맨홀, 유틸리티 입구, 에스컬레이터, 기계실, 펌프실, 하수 라인, 도간 통로, 유틸리티 서비스, 조명, HVAC 시스템, 요금 징수 장비, 건물 입구 및 기타 장비 통행로 등과 같은 광범위한 지하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 평가는 7월에 시작됩니다. 특정 프로젝트 포함 내용:

- 손상된 강 하부 지하철의 설계 및 계획 수리 작업
- 펌프실 증대
- Coney Island, 148th Street 및 207th Street 지하철 차고, Manhattan, Brooklyn, Bronx의 저지대의 12개 통풍 장치의 홍수 피해 구제를 위한 계획 및 설계 작업
- St. George 터미널과 Staten Island Railway의 Clifton Shop의 홍수 피해 구제 시설

St. George 터미널 작업 명령의 Clifton Shop은 그대로 유지되며 벤더의 보류안은 곧 전달될 예정입니다.

MTA는 다른 태풍 Sandy 수리 및 복원 프로젝트로 2억 5000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도시 교통 및 통근 철도 네트워크 전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 수리로 대부분의 MTA 네트워크가 운행되고 있지만 영구적인 복구 방법을 설계하여 구현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South Ferry 지하철역은 심하게 파손되어 재건에 몇 년이 걸릴 예정이지만 South Ferry 루프 스테이션은 그 사이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East River와 Newtown Creek 아래를 지나는 8개의 지하철 노선은 소금물에 잠겼으며 몇 개의 지하철 차고와 터미널역도 잠겼습니다.

MTA Metro-North Railroad와 MTA Long Island Rail Road는 또한 태풍 Sandy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미래의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철로, 신호, 전력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양쪽 철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TA 다리 및 터널은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홍수 기간에 물에 잠겼던 Hugh L. Carey 및 Queens Midtown 터널에서 고장 나기 쉬운 장비와 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NYS 2100 위원회의 권장 사항에 따라 다리와 터널에 대한 연구를 하여 Rockaway 다리가 특히 극한의 기후 상태에 있을 때 최고의 수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arine Parkway-Gil Hodges Memorial 및 Cross Bay Veterans Memorial 다리는 태풍 Irene과 태풍 Sandy가 발생했을 때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Sandy가 발생했을 때 침수되었습니다.

MTA 시스템은 Sandy 발생으로 부식성 바닷물에 침수된 열차 및 지하철 선로, 차량 전용 터널, 지하철 역사, 전기 및 신호 장치에 대한 피해액으로 약 47억 5,500만 달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MTA는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FTA)로부터 New York City Transit, Metro-North Railroad, Long Island Rail Road 및 기타 MTA 부서가 개시한 수리 및 재난 복구 작업을 위해 12억 달러를 할당 받았으며 연방 비상관리기구(FEMA)로부터 MTA 다리 및 터널을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MTA의 교통 프로젝트는 향후 몇 달 안에 중요 수리 및 복구 사업과 FTA의 긴급구조 프로그램에 따른 경감 및 완화 조치를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MTA 다리 및 터널은 또한 7개의 교각 및 2개의 터널 복구 작업을 위해 추가적인 연방 자금을 FEMA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